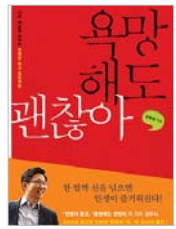




숨기려 들면 오히려 더 위험한 '욕망'

'욕망해도 괜찮아'

김두식 지음



솔직히 '유명해지고 싶다', '잘 나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 마음을 숨긴 채 아닌 척, 무심한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려서부터 규범을 강요받고 살아온 데서 비롯된 일들이다. 최근 '욕망해도 괜찮아'를 펴낸 김두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그런 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꺼내놓았다. '색, 계'라는 제목으로 장비 블로그에 연재했던 이 글들이 많은 화제를 모았던 건 딱딱한 '규범' 안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자가 자신을 철저하게 내보이며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가슴이 뜨끈뜨끈할 것이다. 저자가 풀어놓은 '욕망'들은 우리가 외면했던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직원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

'Inside Apple'

에뎀 라신스키 지음



세계 최고회사가 된 IT업계 최강자 애플. 철저한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등 투명성을 강조하는 현대 기업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유쾌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케팅, 제품을 위해서는 인신공격도 불사하는 등 치열한 경쟁 분위기에 엄격한 책임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도 직원들이 떠나지 않는다. 무슨 이유일까. 경제전문지 포춘의 선임기자 에뎀 라신스키는 '비밀 제조 애플 내부를 파헤치다'를 통해 애플 내부를 공개했다. 애플 최고위층에서 말단사원까지 인터뷰하고 사내문화를 탐색해 그 실상을 고스란히 담았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던 내부 시스템, 기업문화, 일

하는 방식, 혁신적 제품을 성공시킨 비결을 날카롭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풀어내고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책을 넘기다보면 창문 없는 방에서 하는 신제품 회의, 참석자를 철저히 통제하는가 하면, 건물 한 층 전체에 특수감광장치를 달고 정보 유출 각서를 쓴 사람만이 참여하게 하는 철저한 폐쇄적 기업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극도로 제한된 책임과 권한만 가지는 직원들에 비해 모든 광고를 감독하고 승인하는 일부러 대비 회의에 참석할 임직원을 결정하는 일까지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는 CEO 등 현대 경영 이론과 다른 내부 관리도 소개한다. <창립출판·1만50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보수의 교묘한 집권전략 민중들은 착란현상에 빠져들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미국 50개 주에서 가장 가난한 곳이다. 이 지역의 유권자 56%는 지난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한 표를 던졌다. 지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난한 캔자스 주 유권자 80%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줬다. #.2012년 4월 11일 총선이 끝난 뒤 한 여론조사기관(한국리서치)이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다. 정당투표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보수정당을 더 지지했다는 게 골자다.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계층에서 보수 여당을 찍은 비율이 76.2%, 101만~200만원이 49.7%, 201만~300만원이 48.6%, 500만원 이상이 45.1%로 나타났다. 역사학자인 토머스 프랭크가 쓰고 김병순씨가 옮긴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의 일부분이다. '노동자와 가난한 서민층의 정당이 민주당이고, 부자와 큰 대기업 정당은 공화당이다'는 말은, 미국인들에게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다. 이 상식과 정반대되는 '수수께끼'같은 일이 벌어져서이다. 게다가 부시는 당시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준, 서민 복지와는 거리가 먼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웨스트버지니아 유권자들은 '서민에게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그에게 표를 던졌다. 도대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걸까.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99%의 서민을 대변한다'는 정당이 정작 서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토머스 프랭크 지음

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 출발점은 저자의 고향인 미국 캔자스. 저자 표현대로라면 '가난한 소농들이 자신들을 땅에서 내쫓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표를 던진다. 가정에 헌신적인 가정은 자기 아이들이 대한 교육이나 적절한 의료혜택을 결코 받을 수 없는 일에 조심스레 동의한다.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몰락한 공업도시'로 만들며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날릴 정책을 남발하는 후보자에게 압승을 안겨주며 갈채를 보낸다'는 지역이다. 그는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캔자스 주민들이 선거 때만 되면 거의 어김없이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부자들의 정당, 공화당에 표를 던진 이유를 파고들었다.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치가들과 만나고 풀뿌리 운동가들과 인터뷰를 하며 하나하나 짚어나간다. 저자는 여러 이유 중 하나를 '민중 착란 현상'으로 꼽고 이를 조장하는 게 보수 우파의 교묘하고 은밀한 집권 전략이라고 폭로한다. 한때 가장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지역으로 꼽혔던 캔자스가 보수주의의 뒷밭으로 돌변한 데는 우파가 잠기간

단지, 남자일 뿐... 무엇을 원하는가

'남자, 그림이 되다'

가브리엘레 틀러 지음



강한 남자를 원하면서도 혐오 없이 부드러운 사랑을 바란다. 카리스마를 갖추고 리드했으면 하면서도 우아하고 헌신적이기를 원한다. 물론, 건강하고 매력적이며 유혹할만한 능력도 지녀야 한다. 참 원하는 것 많다. 단지, 남자일 뿐인데 왜 그리 요구하는 게 많은지. 이 때문인가. 가브리엘레 틀러가 쓴 '남자, 그림이 되다'속 남자들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남성을 다룬 그림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부담스러운 면도 적지 않다. 책장을 넘기다보면 '캔버스에 담긴 남자의 아름다운 순간들'이라는 부제에 어울릴만한 그림을 접하게 된다. '에로틱한 남성', '정다운 예인', '진정한 젠맨', '가장의 역할', '노동의 주제', '역사 속 남자' 등의 주제에 알맞은 그림과 설명도 곁들여 페이지가 술술 넘어간다. <예경·1만70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고전에서 실천적 지혜를 찾다

'천작'

김기현 지음



천작(天爵)은 하늘이 내린 벼슬이라는 뜻으로, 사방·의로움·진리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벼슬이라고 옛 사람들은 생각했다. '천작, 선비의 삶에서 사람의 길을 찾다'는 현대인들에게 고전을 바탕으로 실천적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김기현 전북대 교수는 옛 고전 뿐만 아니라 100여권에 이르는 동서 고금의 문화 작품과 인문서를 아우르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다양한 길을 탐

사,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통해 '천작'을 구하는 삶을 추구할 것을 조언한다. '만약 저들이 부유함을 내세우면 나는 사랑으로 나설 것이요, 저들이 벼슬을 내세우면 나는 의로움으로 나설 것이다. 내가 저들에게 부족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맹자의 글은 현대 사회에서 바쁜 일상을 되돌아보게 한다. <서해문집·1만50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두개의 서재... 결혼 후 찾은 꿈의 시간들

'내게 금지된 공간...'

서운영 지음



건축 관련 칼럼을 쓰는 서운영은 부지런한 작가다. '건축, 권력과 욕망을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등 다섯권의 책이 등장하는 공간과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생활과 밀착돼 있어 읽는 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서운영의 새 책 '내게 금지된 공간 내가 소망한 공간'은 지금까지 책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결혼 후 서재를 만들고 책읽기를 시작한 후 자신에게 일어났던 변화들을 써내려간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결혼 후 여섯 차례 이사를 다닌 저자의 집에는 언제나 두개의 서재가 있었다. 아내의 서재와 남편의 서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궁금해 한다. 왜 서재가 두 개인지. '서재'라는 공간은 그녀가 오랫동안 원했던 공간이고, 그곳에서는 다양한 꿈이 일어났다. 수학을 전공하다 건축학으로 전향하고, 설계사무소에서 전공을 살려 일하다 구조조정으로 자살로 밀려나고, 거기서 책읽기와 글쓰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간 이야기와 고경관님들을 깨어나는 삶의 모습은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준다. <공리·1만30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신간

- ▲신정근 교수의 동양고전이 뭐길래? = '역경', '시경', '논어', '맹자', '목자', '노자', '한비자' 등 필독 동양고전 25권을 선정해 의미와 핵심을 정리했다. 고전의 높이를 낮추고 무게를 줄여 일반 대중도 고전의 바다를 헤엄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춰 엮어냈다. <동아시아·1만6500원>
- ▲자연탐구가 우리 아이의 세상 알아가기 = 유아만큼 강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을지. 특하면 만져보고 움켜쥐어보고 들여다보거나 분해해보자. 그러면서 '어떻게'와 '왜'를 찾는다. 도나타 엘렌브로이히는 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초 자연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청소년의 화학과 물리를 설명하는가 하면, 노벨상 수상자 등과 나눈 대화를 들려준다. 세계의 자연과학 교육도 엿볼 수 있다. <예코리브르·1만6000원>
- ▲제3제국 = 나치가 정권을 잡은 1933년부터 유럽 침공과 점령을 거쳐 소련의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함락한 1945년 4월까지, 제3제국이 몰락하는 원인과 과정을 담았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연합군의 이른바 공수작전 등 주요 작전과 전투를 상세하게 다루는가 하면, 패전한 군대의 하사관에 불과했던 아돌프 히틀러가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는지, 승승장구하던 제3제국이 왜 갑자기 몰락했는지 등도 분석하고 있다. 컬러 지도 100여 장과 사진 140여 장을

- 결들여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플래닛미디어·2만9800원>
- ▲청춘을 반반한다 = '청년', '청춘'이라는 타이틀 외부에 있는 사람들, 유명노동자, 고교 자퇴생, 대학 중퇴생, 인디밴드 드러머, 비운동권 조직가, 국보급 위반자 등 10명을 20대 여성 인터뷰어와 40대인 경향신문 기자가 2040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뷰했다.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의 현주소나 청년 장애인의 문제 등을 가감없이 다룬다. <인물과 사상사·1만2000원>
- ▲청춘 착취자들 = 로스 킨린이 사회 구조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청년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본다. 수많은 인턴의 실제 목소리를 담고 인턴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의 실태, 정부와 대학 관계자들이 말하는 인턴 제도의 왜곡된 모습 등을 고발한다. 저자는 청년 노동력 착취를 통해 유지되는 인턴 제도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묻는다. <사월의 책·1만5000원>
- ▲아르센 뤼팽의 마지막 사랑 = 정미로운 도독이자 추리소설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도둑의 활약을 담은 아르센 뤼팽 시리즈를 만들어낸 모리스 르블랑의 미발표 유작으로 16년만에 발견돼 프랑스와 한국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과도 수사 뤼팽의 마지막 모험과 마지막 사랑을 다루고 있다. <문학동네·1만2000원>

- ▲사막에서 한판 불자! = 작가와 독자가 함께 완성하는 '도전! 나도 작가!' 시리즈로, 기쁨 없으면 못 사는 로망과 만나지 못하는 못 사는 고릴라들이 죽을 때까지 1000년 동안 펼쳐는 대결을 다룬다. 작가들이 펼쳐놓은 이야기에 두 색으로 그려진 일러스트를 따라가면서 간단한 발췌문 대사나 음향 효과를 넣어 책을 완성하게 된다. <책 읽는 곰·9800원>
- ▲바람둥이 강민우 =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장가가는 할머니의 성화에 소꿉친구 경미를 색시감으로 정한 민우의 이야기다. 갑자기 경미가 이시간 뒤 연상인 5학년 민우 누나가 슬그머니 좋아하고 친구들은 '바람둥이'라고 놀린다. '결혼'이란 소재를 아이 시선으로 귀엽고 유쾌하게 그려냈다. <주니어김영사·9500원>
- ▲다섯 작가 이야기 꿈 = 이광의·안은영·이민희·이혜란·김병희 등 다섯 작가의 개성이 부딪히고, 양키고 쉬어 다시 새로운 의미 세계가 만들어진다. 각 작가들이 꿈을 떠올리며 형성화하는 과정에서 받은 위로와 힘을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한다. '우리 그림책 길 찾기 : 흥성찬 글목' 프로젝트에서 만든 그림책이다. <보림·1만5000원>
- ▲손 없는 각시 = 옛 이야기를 보다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엮은 '곱이곱이 옛이야기' 시리즈 중 하나로, '손 없는 각시', '친필보다 착한 양아들' '호랑이를 잡아 아버지 원수를 갚은 아들' '착한 아우와 못된 형' 등 아름다운 다투다가도 재미있게 살았던 가족에 얽힌 이야기를 담았다. <해와나무·8800원>
- ▲지도없이 떠나는 101일간의 예술의 세계사 = 미술과 음악, 춤을 중심으로 유명한 작품과 분야별 특징을 다룬다. 대륙별로 꼭 알아야 할 예술 지식을 흥미롭게 알기 쉽게 일화 중심으로 설명한다. 세계적인 예술작품의 탄생 비화와 특징을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영국출판·1만2000원>

어린이 책꽂이

